

## 1929년의 원산총파업과 그 특징

김 미 영

1929년초에 일어난 원산총파업은 일제식민지통치에 큰 타격을 주고 우리 나라 노동운동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장식한 의의있는 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에서 특기할 점은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이었으며 현대적인 협조정신이었다.》(《김일성전집》 제100권 368페이지)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의 전국도처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다.

원산총파업의 첫 도화선으로 된것은 문평석유회사소속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었다.

문평석유회사는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오늘의 강원도 문천시)에 있는 영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였다.

1928년초에 이 회사의 일본인감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선인노동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회사소속 노동자들의 격분을 자아냈으며 9월 중순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문평석유노동조합의 지도밑에 일본인감독의 철직 및 임금인상 그리고 단체계약의 체결 등의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것으로 번져졌다. 문평석유회사소속 노동자들은 회사가 자기들의 요구를 외면하자 다음해 1월 또다시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해오던 원산노동련합회는 즉시 사건전말을 아래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300장의 리유서와 100장의 선전물을 준비하였다. 한편 노동련합회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아래단체들이 문평석유회사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에 총결기할것을 호소하였다.

원산노동련합회는 1921년에 합동노동조합의 형태로 발족하였던 원산노동회가 1925년 10월에 운송로조, 두량로조, 선박로조, 해륙로조 등의 직업별에 따르는 노동조합으로 분리되였다가 다시 련합하여 지역별노동련맹조직으로 발전한것이였다. 이 조직은 노동계급의 통일을 이룩하며 무산자의 세계적인련계를 가지는것, 무산계급의 해방을 이룩하는것을 자기의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문평석유회사에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파업은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원산항의 화물수송을 담당하고있던 국제운수 및 통운주식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확대되였다.

국제운수주식회사와 국제통운주식회사의 원산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문평석유회사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응하여 석유회사와 관련이 있는 화물을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두 회사의 자본가들은 1월 18일 오전 10시경에 인부 450여명을 해고해버렸다.

원산노동련합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그 아래단체인 원산운송노동조합 노동자 약 450명이 동정파업에 진입한데 이어 원산의 각 운송점노동자들이 1월 22일부터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

원산노동련합회는 원산운송노동조합원 약 450명을 전부 해고한 자본가들의 탄압책동에 맞서 아래단체들에 총파업투쟁에 결기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1월 22일 오후 2시에는 근 500여매나 되는 선언서를 배포하였는데 선언서에서는 국제운수 및 통운주식회사소속 원산지점 노동자 450여명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유를 적라라하게 밝혔다.

1월 23일 원산로동련합회에 망라된 2 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일제히 총파업에 궐기 해나섰으며 여기에 그들의 가족까지 합세함으로써 총파업에 참가한 수는 원산시 총인구의 거의 1/3에 달하였다.

원산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하여 시내의 모든 산업운수기관은 물론 상업계도 완전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원산의 각 부두에는 운반되지 못한 화물이 그득히 쌓이게 되었으며 각 운송점에서는 1월 22일부터 《인부 동정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함》이라는 패쪽을 붙이고 일체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산항의 무역액은 평시에 비하여 1/10도 안되었으며 은행에서도 할인해주던 수형은 물론 신용으로 할인해 쓰던 수형조차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원산총파업의 확대에 겁을 먹은 일본인자본가들은 경찰들과 헌병까지 동원하여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각지에 인부모집대를 파견하고 《국수회》라는 악질단체까지 내세워 파업투쟁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제경찰과 폭력단의 폭압만행에 대항할수 있는 규찰대를 조직하고 장기전을 벌리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갖추 목적으로 금주 등 여러가지 운동을 벌리었다. 2월 14일 노동자들은 500가마니의 식량을 구입하여 40여대의 차에 싣고 원산부두로부터 시내를 순회하면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3월 4일 오후 2시에는 4백포대의 좁쌀을 40여대의 차에 싣고 1 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온 시내를 돌면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원산총파업에 참가한 단체들을 보면 문평석유회사로동조합, 국제운수주식회사와 국제통운주식회사 로동조합, 원산운송로동조합, 원산인쇄직공조합, 원산양화직공조합 등이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1월 22일에 300명으로부터 1월 26일에 2 000여명으로 늘어나 초기보다 67%나 장성하였다.

원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전국각지 로동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여왔다.

전국의 로동단체들에서는 원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파업투쟁들을 단행하고 투쟁자금과 격문을 보내는 등 그들의 투쟁에 적극 합세하였다.

함경남도 홍원지역의 로동조합에서는 1월 24일 오후 7시부터 긴급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중에 있는 원산로동련합회의 파업투쟁에 정신적 및 물질적인 지지성원을 보낼것을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합원전체가 금주를 단행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조합원 180명은 매 사람당 15전씩 모아서 원조하자는 제기를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월 30일 덕원군 적전면 당우리(현재의 강원도 판교군)의 농민들도 각각 나무한단씩 모아 도합 260단을 원산로동련합회에 보내어 강추위속에서 파업을 진행하고있는 노동자들을 적극 고무격려하였다.

2월 2일부터 2월 5일 오전까지 23개 단체들에서 원산로동련합회에 도합 25원의 투쟁자금을 보내여왔으며 3월 9일 목포에 있는 목포로동련맹소속 로동조합에서는 20원의 투쟁자금을 보내여왔다. 이밖에 한성, 해주, 진주, 정주, 룡강, 홍원, 리리, 군산, 대보, 금천, 덕원의 각 단체들과 중국 길림성에서도 수많은 투쟁자금과 격문을 보내어 원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러나 원산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일제의 가혹한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핵심성원들을 대부분 잃게 되었으며 투쟁자금이 떨어지고 생활조건이 악화되는 등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원산로동련합회의 지도부들

차지하고있던 상층인물들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파업투쟁은 실패하게 되었다.

결국 2 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80여일간이나 계속되어오던 원산총파업은 4월 6일 녀달만에 진압되고말았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종래 다른 파업투쟁들에서 볼수 없었던 특징을 가지고있었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의 특징은 우선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는데 있다.

원산노동련합회는 《우리는 결속력으로써 대항할것이며 결코 완력을 행사하지 말것, 파업을 핑계로 음주하지 말것, 항상 규률을 지키며...기타 생활비를 될수록 절약하여 지구 전으로 나갈것...》 등의 항목을 아래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이것은 파업기간 규률을 강화하고 파업이 장기전으로 들어갈수 있는 조건에 맞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므로써 강한 단결력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려는 원산노동계급의 확고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고있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의 특징은 또한 노동계급의 현대적협조정신을 힘있게 과시하였다는데 있다.

총파업기간 문평석유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합세하여 국제운수주식회사와 국제통운주식회사 원산지점, 원산인쇄직공조합, 원산양화직공조합과 정미소 등 원산의 근 2 000여명의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한편 원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합세하여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이 많은 자금과 지지성원을 보내여왔다.

당시 《동아일보》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 24일 원산노동련합회소속 약 2 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진입하자마자 함남각지의 노동계급은 당일 오후부터 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2월 2일까지의 열흘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원산노동자들에게 격문을 보낸 단체들은 무려 26개, 파업자금은 100원 70전에 달하였다.

이밖에 평양일대의 18개 노동단체와 경상도일대의 5개 단체들에서도 많은 자금을 보내주어 원산노동계급을 크게 고무격려하였다.

원산총파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성원은 국내적인 범위를 벗어나 중국의 길림성을 비롯한 해외에까지 퍼져나갔다.

원산총파업에서 조선노동자들은 임금인상, 노동조건개선 등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던 종래의 범위에서 벗어나 일본자본가들과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애국적정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원산의 노동계급은 1월 24일 원산노동련합회의 명의로 52개 아래단체들에 《우리를 압박하는자는 저들 자본가요, 결코 일시 호구를 위하여 저놈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를 증오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선언서를 배포하고 파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원산노동자들은 선언서에서 초보적인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조선인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일제와 자본가들의 파렴치성에 항거하여 자기들이 더는 착취와 압박에 말없이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은 파업지도부에 잠입해있던 상층인물들의 배신행위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비록 실패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맞서 끝까지 싸우려는 조선노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뚜렷이 과시하였다.